전문대 2018학년도 정원 줄인다

전문대 교육협 전형계획 발표…지난해 대비 4728명 줄어든 21만 129명 선발…수시모집비중 0.9% 증가

2~4년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들도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발맞춰 입학정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전국 137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계획 주요사항' 발표를 통해 2018학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4728명(2.2%) 감소한 21만12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은 전공 특성에 따라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구분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2년제 중 127개 대학이 13만 8304명(65.8%)을, 3년제 중 125개 대학이 5만8772명(28%)을 선발한다. 간호학과와 제주도 일부학과에 한정되는 4년제 중 74개 대학이 1만3053명(6.2%)을 선발할 계획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문대학들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출신, 저소득층 및 사회 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통해 전체 선발인원 중 1만2359명을 모집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특별전형'도 확대해 지난해 대비 1754명 증가한 941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136개 대학(특수목적대 농협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85.1%인 17만8861명을 선발한다.

이는 2017학년도(18만869명) 대비 2008명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2017학년도(84.2%)대비 0.9%p 증가했다.

해당 전문대들은 수시 1차에서 전문대 전체 입학정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3만2991명(63.3%)을 선발하고, 수시 2차에서 4만5870명(21.8%), 정시에서 3만1268명(14.9%)을 뽑는다.

정시모집으로는 136개 대학에서 3만1268명을 선발한다. 전체 137개 전문대학 중 동아보건대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내부 갈등으로 2018학년도 입학전형을 확정짓지 못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 전문대학들은 일반전형으로 7만4405명(총 모집인원의 35.4%)을, 대학별 자체 특별전형으로 9만7825명(46.6%)을 선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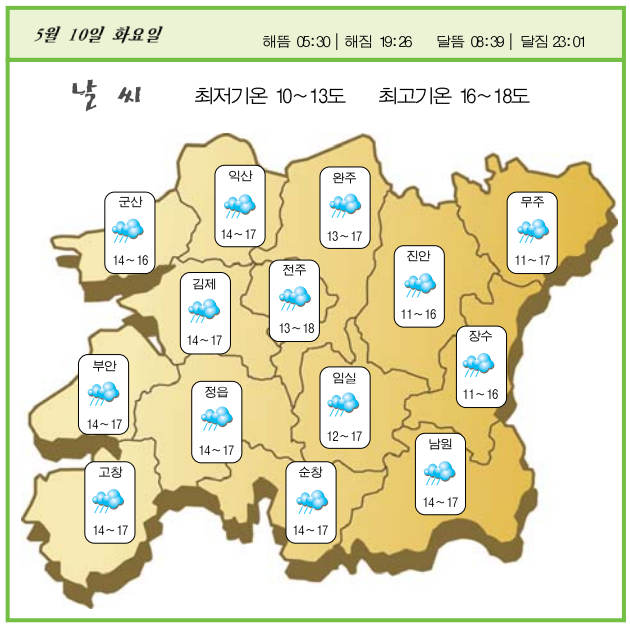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졸자, 저소득층(기회균형대상자), 장애인, 재외국인,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총 3만7899명을 뽑을 예정이다.

전문대 입학 전형은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대부분 대학이 2개 이내 요소만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대학들은 교과 성적과 동아리·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 인원의 70.6% (14만8336명)를 선발한다.

2017학년도부터 수능에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 중 25개 전문대에서 한국사 과목을 입학전형 과정에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청년 지원정책 다변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건강검진 등

전주시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대학생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에는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신청해 제도의 연착륙이 기대된다.

전주시는 지난 4월 한 달 간 상반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올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전체 대상자 2497명 중 43.4%인 1085명이 이자지원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전주지역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이다.

이를 올해 1억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그동안 등록금을 부담하기 위해 학업과 생업을 병행해야 했던 지역 대학생 2000명을 지원해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1학기 지원신청 접수결과,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총 802명 신청했으며, 전주시에 주소를 둔 타 지역 대학 재학생도 293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현재 추가 모집이 진행중인 김제와 완주 등 도내 타 시·군의 신청자가 두 자리 수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비된다.

전국적으로도 소득수준 9~10분위에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의 올해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26.8%에 달하고, 지난해 성남시의 경우도 전체 대상자의 23%만 신청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참여율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시는 민선6기 들어 청년·대학생 관련 공약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외에도 청년 건강검진 사업과 청년 상상놀이터 운영 등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무료 건강검진사업은 음주와 흡연,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건강위험도가 높지만 최근 심각한 청년취업난으로 인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만 19세부터 30세 청년들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청년 건강검진은 전주시 보건소 완산진료실과 덕진진료실 두 곳에서 연중 실시되며,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요검사로 이뤄지며, 혈액검사를 통해 B형간염 항원?항체, 콜레스테롤 수치 등 12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시는 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모델로 자리매김 한 남부시장 청년몰과 야시장에 이어 최근에는 신중앙시장에도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년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전북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반영 안해

전북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조7062억원보다 883억원(3.3%)이 늘어난 2조 7945억원 규모이다.

주요 예산안을 보면 ▲교원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분 209억원 ▲시설안전 환경개선비 등 시설비 179억원 등이다. 또 원아 수 증가에 따른 유치원 추가분 32억원과 학생안전관리 지원 5억원 등도 반영됐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용주 기자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단원고등학교 '명예교실' 이전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안산시, 단원고 등이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4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이 이루어진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명예교실의 모습.

원광대병원, 메디칼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기관 선정

원광대학교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16년 제1차 메디칼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각국에서 선정된 의료 인력들을 국내 의료기관에 파견, 연수를 통한 선진의료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연수는 오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가 진행되며 6개국 19명의 연수생이 12개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풍력기술연구센터' 중점 연구소사업 선정

2024년 12월 까지 3단계 진행 63억 9000만원 투입 예정

군산대학교의 풍력기술연구센터(센터장: 주영훈 교수)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16년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사업'에 선정됐다.

군산대학교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올해 5월부터 오는 2024년 12월까지 총 9년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총 사업비 63억 9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풍력기술연구센터는 새로운 전력 변환 및 제어 기술 기반 고성능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형태의 기어 없는 발전기(버니어 발전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합한 전력변환장치 및 제어기를 중점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기제어개발부(제 1세부)와 이를 풍력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블레이드의 구조 및 형상, 재질, 및 지지대를 연구하는 기계시스템개발부(제 2세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나의균 총장은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거점으로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있고 풍력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는 등 입지 조건도 상당히 좋아 이 같은 인프라를 활용한 학연산 협력을 통해 군산대 풍력기술연구센터가 지역거점 연구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